

오피니언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생 바로알기

호남 문화

법과 질서

시·설

‘5월 정신’ 계승해 국민통합 이뤄내자

오늘은 5·18 광주민중항쟁 32돌을 맞는 뜻깊은 날이다. 군사독재에 맞서 피로 이 땅에 민주화의 초석을 다진 영령들을 추모하며 아직도 고동받고 있는 유족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

18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는 ‘희망의 빛, 다시 피는 꽃’이라는 주제로 32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추모 열기는 여느 해에 비해 다소 떨어졌지만 기념식 사상 최초로 ‘5월의 노래’가 선을 보였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기념식순에 공식 삽입되는 등 나름의 의미를 살렸다.

하지만, 5·18 32돌을 맞는 우리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대통령의 기념식 불참은 물론 광주의 희생으로 지켜낸 민주와 인권은 오히려 후퇴하고, 한반도는 냉전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2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론은 분열되고 세대간·지역간·계층간 갈등은 위험수위를 넘나든다. 민생은 실종되고 양극화만 심화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 일은 일부 세력의 끊임없는 5·18 왜곡과 폄하 시도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5·18을 삭제하려는 세력의 몰역사적 행위가 얼마나 집요하게 전개됐던가.

그러나 ‘5월 정신’은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5·18’은 단순 과거 사건에 비해 다소 떨어졌지만 기념식 사상 최초로 ‘5월의 노래’가 선을 보였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기념식순에 공식 삽입되는 등 나름의 의미를 살렸다.

하지만, 5·18 32돌을 맞는 우리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대통령의 기념식 불참은 물론 광주의 희생으로 지켜낸 민주와 인권은 오히려 후퇴하고, 한반도는 냉전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2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론은 분열되고 세대간·지역간·계층간 갈등은 위험수위를 넘나든다. 민생은 실종되고 양극화만 심화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해체 농어촌 위기 부른다

다문화가정이 이혼 및 배우자 폭력 등으로 인해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만 하더라도 다문화가정이 1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주여성들의 이혼도 그만큼 늘고 있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주여성이 광주 4003명·전남 8034명(지난해 12월 기준) 등 1만2037명으로 2007년 이후 매년 10%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에 비해 이혼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006년 287건에서 2008년 560건, 2010년엔 639건으로 4년 사이 무려 2.2배나 늘었다.

이후에 앞서 배우자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주여성 센터를 찾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광주 이주여성 센터의 입소현황을 보면 2009년 58명, 2010년 78명, 2011년 99명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다문화가정 해체는 결혼 중개업체의

왜곡된 정보 제공에 따른 배우자 간 불신과 의사 소통 및 경제적 어려움, 생활 양식의 차이에서 오는 부작용이 주요 원인이다.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이미 일반화된 지 오래다. 농어촌 지역에선 신랑 10명 가운데 4명꼴로 외국인 신부를 맞는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주여성이 광주 4003명·전남 8034명(지난해 12월 기준) 등 1만2037명으로 2007년 이후 매년 10%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에 비해 이혼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006년 287건에서 2008년 560건, 2010년엔 639건으로 4년 사이 무려 2.2배나 늘었다.

이후에 앞서 배우자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주여성 센터를 찾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광주 이주여성 센터의 입소현황을 보면 2009년 58명, 2010년 78명, 2011년 99명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다문화가정 해체는 결혼 중개업체의

無等鼓

1802년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돼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15세 소년이 찾아와 절을 울리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황상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왔습니다.”

다산은 이 소년을 동네 아전들의 자식들과 함께 글공부를 시키다가 열흘만에 제자로 받아들였다. 황상이 양반이 아니어서 과거를 볼 수 없었기에 시를 짓도록 가르쳤다. 다산은 여러 제자 중 황상을 가장 아꼈는데, 강진에서 보낸 18년 가운데 16년을 황상과 함께 했다.

1818년 다산이 유배에서 풀려 고향인 경기도 마재(지금의 광주)로 돌아간 후에도 들은 편지를 통해 사제간의 정을 나눴다. 그리고 18년의 세월이 흘러 다산이 회흔례를 맞아 황상이 열흘간 걸어 스승을 찾아왔다.

황상은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다산도 사랑하는 제자를 오랜만에 만나 반가움에 황상의 손을 잡고 울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다산은 세상을 떠

났고, 귀향 도중 스승의 부음을 들은 황상은 절음을 돌려 장례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갔다.

다시 10년이 지나 다산의 기일에 그의 생가가 웬 노인 한명이 나타났다. 한 갑이 다 된 황상이었다. 스승의 기일에 맞춰 보름 남게 강진에서 마재까지 천리길을 걸어간 것이다.

다산의 장남 정학연은 크게 감동해 “앞으로 정씨와 황씨 두 집안의 자손들은 이런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만남을 잊지 말고 서로 왕래하며 우정을 지켜나가자”는 약속이 담긴 편지를 황상에게 보냈다. 후세의 사람들은 이 문서를 정씨와 황씨 집안이 약속을 맺은 문서라는 뜻으로 ‘정황계첩(丁黃契帖)’이라고 불렀다.

학생이 교사를 때리거나 교사가 학생을 심하게 다루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교단의 붕괴가 심각한 요즘, 정황계첩을 되새겨 보면서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 제자에 대한 감사의 가르침을 깨달았으면 한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조현중

綠雨堂의 진정한 가치

오늘날 한국의 종가(宗家)들은 지역사회를 향해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한다. 문뜬으로 보이던 집안 풍경을 훑쳐내던 예전과는 달리 종가를 찾는 사람들 또한 단순히 수동적인 방문객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다가서며 즐기고 만끽한다. 해남 윤씨의 종가인 녹우당은 전통적인 우리나라 종가들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예컨대 친척집단을 통합하는 중심인 뿐 아니라 지역주민 나아가 국내외를 향한 열린 문화공간을 희망하는 한국학 전문 아카데미로서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다.

녹우당은 해남 백련동에 있다. 조선시대 남인의 중심세력인 고산 윤선도의 세거지이다. 윤선도는 거부의 가문을 형성했지만, 언제나 부당한 권력에 맞섰으며 16년의 유배생활을 할 정도로 양심적 선비였다. 이후 녹우당은 그의 증손 공재 윤두서와 공재의 아들 나서 윤덕희, 손자인 최운용 등에 걸치는 3대의 예술적 재능의 산실이었을 뿐 아니라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정쟁한 학자와 예술가들이 모이고 머물렀던 이른바 살롱이었다.

다산 정약용은 공재의 외증손으로 강진 유배시절 실학을 완성한다. 그는 유배생활 내내 외가인 녹우당 사람들과 교류하였으며 수많은 서적을 탐닉하였다 한다. 그런가 하면 추사 김정희와 초의선사, 그리고 진도 출신의 소치 허유와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녹우당을 드나들었다. 말하자면 녹우당파였던 셈이다. 특히 소치는 초의선사의 소개로 녹우당을 찾아 공재화첩을 빌려보면서 며칠 동안 침식을 잇을 정도로 감격했다는 일화를 남겼다. 녹우당은 엄격한 유교적인 가풍을 견지하였으면서도 이에 얽매이지 않고 다산으로부터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등 선진학문이나 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이었다.

녹우당에는 국보 1점과 보물 10점 등을 비롯한 문집과 글씨, 그림 등 4600여 점의 조선시대 명품과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단일 가문으로서 녹우당의 소장품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독보적이다. 특히 어느 것 하나 선조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대를 이어 생산된 자체 컬렉션이라는 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 가운데에는 단가문학의 최고봉인 고산의 어부사시사가 실린 윤고산 수적관계

문서(보물 482호),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국보 240호), 해남윤씨 가전고화첩(보물 481호), 그리고 신문복의 작품과 비견되는 윤용의 미인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엄청난 분량의 이 자료들이 오늘날까지 존할 수 있었던 것은 종가의 가훈인 ‘죄선’과 ‘근검’의 가풍을 이어가려는 노력, 즉 선조의 품격을 전세하려는 의지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데 녹우당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작품이 많거나 보관이 잘 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많고 다양한 작품의 수장처로서도 중요한 문화적 의미가 있지만, 이를 공개함으로써 자유로운 관람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더욱 중요한 인문학적 의미를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녹우당의 변화를 견인하는 콘셉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50여 점의 알기 쉽게 놓인 전시관은 이미 해남 백련동, 아름다운 전원마을의 열린 문화센터로 기능을 한다. 전문가나 비전문가를 가릴 것 없이 전시관을 찾는 이들에게 훌륭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시관은 녹우당의 의미를 한층 생생하게 살려내는 공간인 셈이다. 더불어 전시관을 해남군이 마련하고 운영한다는 것도 신선

한 발상이다. 말하자면 녹우당은 작품전시나 관람을 빌미로 한 모든 재정적인 관계와 조연하다.

녹우당이 자칫 종가의 위엄을 깎아내리기도 모른다든 일부의 우려와 달리 소통의 중심점으로 변화되기까지는 고산의 14대 증손 윤형식(79) 선생의 노력이 컸다. 가문의 실용정신을 계승한 선생은 연세대 영문과 출신으로 한동안 외국계 회사에 근무했지만, 부친(윤영선, 1904~1997)의 뒤를 이어 녹우당을 맡았다. 녹우당의 자료가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전시되기에 이르렀다.

선생은 최근 녹우당 인근에 새로이 농촌 체험을 위한 한옥을 짓고, 주변에는 차밭을 일궈놓았다. 아직 한국의 종가들이 생존을 모색할 만큼 경쟁적이진 않지만, 지금은 호별이 된 유럽의 아름다운 종세의 성채를 기억하면서, 언젠가는 현실적으로 대두될지도 모를 녹우당을 대비한 해답을 떠올렸다. “케으르면 중순하기도 힘들다”는 그가 녹우당의 가치를 일신한다.

〈국립광주박물관장·문학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고칼럼



일담

승복을 처음 입은 날

처음 승복을 입던 날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파릇파릇한 스물다섯의 봄날이었던가? 김천 적지사에서 21일간 사미계를 받고 헤어지는데 다른 스님들 옷이 좀 달라 보였다. 밑단이 길고 웃고름도 기다란 것이 접잖아 보이기도 하고 좋아 보였는데 나만 빼고 모두 그 옷을 입고 있었다. 그게 두루마기와 밖에서는 이런 옷을 입고다녀야 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

졸업식 날 모두 학사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데 나만 안 입고 찍은 어색할까? 지금도 그때 두루마기 아닌 적삼만 달랑 입고 신문 나간 스님이 싫거나 혼자뵈었어? 라고 위안을 해본다. 그때는 그냥 밤색 행자복이 회색 승복으로 바뀐 것만으로도 차고 넘쳤다.

적지사에서 내려오는 길! 광주에서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내려가자는 도반들 말을 뿌리치고 혼자 해남행 막차를 탔다. 너무 늦은 시간인가! 앞좌석에 노인 두 분만 이 승객 전부인 쓸쓸한 버스였다. 시골길을 달리는 차장 너머 풍경은 유달리 어두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문득 차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낯설다. 민머리에 회색빛 승복, 내가 아닌 누군가가 앉아 있는 듯했다. 그 낯선 모습에 아! 이제 정말 내가 출가를 했구나! 뺨속 깊이 절절해 진다.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고 싶는데 내가 승려가 됐다고 토로하고 싶은데 지금까지의 인연을 버리고 거어어 출가했다고..

하지만 누구 하나 연락할 이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창유리 너머로 부모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형, 동생, 친구들의 모습이 차가 풍경을 스쳐 지나듯 하나 둘씩 저 어둠 속으로 깊숙이 사라진다.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쓸쓸한 버스 뒤편에서 웅크리고 한없이 울었다.

해남 터미널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걸었다. 아무도 받지 않는다. 어디 가셨을

까? 일지암 오르는 길은 캄캄한 숲길이다. 달이라도 떠 있으면 좋으련만 어두컴컴한 숲길을 휘적휘적 걸어 오르는데 만득이가 따라온다. 큰 절 같았던 만득이의 원래 이름은 만덕(萬德)이다. 스님들은 이름이 너무 좋아도 오히려 좋지 않다고 그냥 만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늦은 밤 큰절을 거쳐 일지암을 오르면 만득이가 꼭 동행을 한다. 만득이는 자존심이 강하다. 그래서 아무리 불려도 가까이 오질 않는다. 대신에 멀리서 고개를 뻗뻗이 세우고 내 쫓무나니 잘 따라오라는 듯이 안내를 해 준다. 어둔 숲길에 만득이가 반갑다.

멀리 암자에서 비치는 희미한 불빛이 발걸음을 서두르게 한다. 성급성급 오른 일지암! 적막이 가득하다. 살림당에 작은 매모 쪽지가 놓여 있었다. ‘차를 만들러 보성에 가니 불 때고 따뜻하게 자라.’ 만득이는 대웅전 마당에 벌써 자리를 잡았다. 늦은 밤 산중에 조용히 왜 그렇게 무거웠을까? 절망을 조심스레 벗어 한켠에 놓고 마루턱에 앉으니 멀리 향로봉이 어두운 하늘에 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오래된 신문지와 잔가지로 자우홍련사 아궁이에 밑불을 붙인다. 장작을 넣고 불을 살리는 일은 몇 번을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다. 승려가 된 첫날밤이다. 덩치 큰 고요가 온 산에 얹혀 있다. 비좁은 아궁이 방에 겹겹이 쌓여 있는 장작더미가 눈을 가득 메운다. 갑자기 외로움이 몸서리치게 다가온다. 이제 혼자구나! 앞으로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구나! 갑자기 바람이 불었는지 아궁이에서 매운 연기 가 솟구치고 연기 때문인지 무슨이 유인지 눈물범벅으로 흘쩍 뿜쳐나왔다.

눈물범벅 때문 눈을 비비는데 따뜻한 바람이 온몸을 부드럽게 감싼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는 세에 살랑거리는 바람이 내 몸을 푹 건들면서 순식간에 지나간다. 뒤따라 파도 치듯 바람 우는 소리, 나무와 숲이 우는 소리 사이아 철썩 사이아 철썩, 온 산이 바람이 아니 그제 산과 바람뿐이었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였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내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 ‘너는 혼자자 아니다. 철나의 숲간이었다.

숲이 우는 소리 바람이 내 몸을 깊숙이 지나고 따뜻한 열기가 몸에 퍼진다. 입가에 절로 미소가 맺힌다. 그날 저녁 정말 깊고 편안한 잠을 잤다. 지금까지 그 느낌을 평생 잊을 수 없다. (백련사 중무스님)

기고

중기제품 공공구매 확대하자



박내영

공공기관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살 때 어떻게 사는 것일까? 좀 더 싸고 질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개인 구매와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즉 개인이 직접 마트나 시장을 찾아가서 필요한 물건을 고르는 개인구매와는 달리 공공구매는 구매담당자가 직접 물건을 보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조달계약이나 공개입찰이란 절차를 통해 필요한 물품·용역·공사를 공급받고 있다.

정부는 2009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관료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

기관이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보다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다.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 중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그 중 기술개발 제품은 10% 이상을 구매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공사용 자체 직접 구매제도’가 있는데, 이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는데 공공기관이 이행해야할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공사에 소요되는 품목의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에서 자재를 설계에 반영하여 관급으로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공사용 자체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레미콘, 엘리베이터 등 총 120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중소기업에게 공공기관은 시장 규모가 크고 대금 지급에 대한 신뢰도가 확실한

곳 이어서 매력적인 경쟁시장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공공기관의 구매정보가 부족하고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와 사적인 만남이 있어야 계약이 되지 않을까하는 과거의 생각 때문에 공공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도 책상에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각종 계약서류 처리와 내부 입찰 진행 등 업무 처리에 바빠, 한하게 웃으며 응대해야 당연하나 혹여 그러지 못 할 경우 중소기업 입찰에서는 고압적이고 관료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하여 전남도에서는 이런 중소기업의 판로 예로 해소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전국 광역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해 왔고 올해는 4월 25일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51개 기업과 35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인들도 공공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뛰어 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 대한 구매 수주를 위한 신속한 수요정보와 생산 제품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력 향상 및 제품 사후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출신 인재들이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나는 지금의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도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법적·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지역제품을 협력하여 구매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랑 운동이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질 때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지역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한 단계 성장해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

(전남도 경제산업국장)

취업 준비생들 드링크 과다음용 주의해야

요즘같이 취업난이 심할 때는 공무원 시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린다. 이른바 공무원 시험에만 사람들이 몰리는 건 국가 사회적으로 갈 데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나쁜 현상이지만 어쨌거나 그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라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 눈에 띄고 있다.

친구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에 있는데 2

년 넘게 학원에 다니고 있다. 시험이 임박해 서는 거기가 숙식까지 한다.

그런데 이 친구를 만나러 학원에 왔다갔다 하다 보면 이 수험생들 중에 드링크 약을 복용하는 학원생들이 아주 많은 걸 알 수 있다. 보통 책상마다 드링크 약이 눈에 띄고 쓰레기통이나 복도, 창틀 밑 곳곳에 드링크 약 빈병이 나뒹굴고 있다.

수험생들은 특히 시험기간이 임박해서 잠을 쫓으려고 드링크계 약을 더 많이 마신다고 한다. 이것이 느낀으로는 피로를 잠깐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자기 최면 같은 걸 주니까 수험생들이 약의 과다를 불문하고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 같다.

카페인 성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졸음을 쫓을 수 있지만 드링크 약의 겉표지에는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하고 그 이상을 복용할 경우에는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또 불안하거나 초조해지고 또한 심장박동수가 증가되고 위산분비도 증가되어서 위궤양이 악화될 수도 있고 위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친구에게 이런 위험성을 말해줬더니 알겠다고는 했지만 당장 시험 앞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야만 한다는 말을 했다. 그 심정을 이해는 하지만 시험 전에는 각성효과가 없는 드링크 약에 의존하다가 건강을 잃지 않도록 유의했으면 좋겠다.

▲유상규·광주시 동구 총장보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주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